

재외동포의

창

2013 2월호



한국이민사박물관
THE MUSEUM OF KOREA EMIGRATION HISTORY

이 박물관은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해외 활약상과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여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건립되었습니다.

제2기 OKF 대학생 자원봉사단 워크숍
오케이 프렌즈 Overseas Koreans' Friends

일시 _ 2013. 2. 7(목) ~ 8(금) 주최 _ 재외동포재단

현장의 목소리 :

차세대 동포 모국 체험과 이해를 돕다
재외동포재단 2기 대학생 자원봉사단 워크숍





세계에서 유일한 '1인 오페라' 판소리

부채 하나 들고, 북 하나의 반주에 맞춰 혼자 노래하는 '1인 오페라'인 판소리는 굿판에서 출발했지만, 양반들까지 즐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소리 예술이다.

우리 판소리는 2003년에 유네스코에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소리가 거칠기도 하지만 반주라고는 북밖에 없고 그에 맞추어 가수가 여러 등장인물의 역할을 다 한다는 면에서 그 독특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심청전에서 보듯 판소리는 이야기가 길다. 다 노래하려면 몇 시간씩 걸린다.

원래 판소리는 12곡이 있는데 현재 7곡은 전해지지 않는다. 수궁가, 심청가, 춘향가, 흥부가, 적벽가 5곡만이 남아 있다.

판소리는 '판'과 '소리'가 합해진 단어다. 여기서 판이란 '소리꾼'과 북을 쳐 주는 '고수', 그리고 '구경꾼'들이 모인 자리를 의미한다. 판소리만큼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조선인이 좋아한 장르는 없었다.





목차 2013 2월호

- 2 **한국의 얼** 세계에서 유일한 '1인 오페라' 판소리
- 3 **목차**
- 4 **한민족공감**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 국민 대통합 시동 걸었다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으로 새 시대 창조
- 8 **특집** 한국 경제의 밑거름 파독광부 50주년
기념 전시회, 다류 제작 등 광부 역사 조명

'기회의 땅' 브라질 이민 성공 50주년
패션 산업 주도 5만여 한인 견실한 공동체 형성
- 12 **기획**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동반성장 위한 공동체 구축"
미리 보는 제14회 세계 한인회장대회
- 14 **화제** 논문 공모전으로 '재외동포 연구' 저변 확대
재외동포재단, 우수 학위논문 5편 시상
- 16 **현장의 목소리** 차세대 동포 모국 체험과 이해를 돕다
재외동포재단 2기 대학생 자원봉사단 워크숍
- 18 **OKF뉴스** 720만 재외동포의 창 '코리아넷' 새단장 외
- 20 **지구촌 통신원** 영어 말, 한글 말
임혜경 미국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 22 **글로벌 코리아** 브라질에 '한류 확산' 숨은 공신
'한국전도사' 브라질 동포 김유나 씨
- 23 **동포문학** 낯은 일기장
연미나(미국) 2012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 24 **나의 살던 고향** 겨울 햇살 찬란한 남도의 보석 고흥반도
-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월 7일부터 8일까지 '제2기 OKF (Overseas Koreans' Friends) 대학생봉사단' 워크숍을 열어 자원봉사단의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봉사단원 간의 팀워크를 도모했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 국민 대통합 시동 걸었다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으로 새 시대 창조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하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경제부흥과 복지확충, 상생과 대탕평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에 이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할지 주목된다.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는 2월 25일 오전 0시 서울 보신각 타종으로 시작했다. 오전 10시 50분에는 박 대통령이 연령·지역별 국민대표 30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광장에 입장하면서 본행사가 시작됐다. 취임식은 국민의례·국무총리 식사·취임선서·의장대 행진 및 예포발사·당선인 취임사·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 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서강대교 입구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이어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국민의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주머니 개봉행사’에 참여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의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한 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관련, “경제부흥을 이루도록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점을 둔 창조경제와 공정시장이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동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창조경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며 일각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 ‘교육’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대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대통령과 3부 요인을 비롯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특사단, 류옌둥(劉延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 등 외국의 주요 경축사절이 참석했다.

취임식 재외동포 2천100명 참석

해외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2천100여 명이 대통령 취임식에 대거 참석했다. 이번 취임식에는 심수관 일본 도에가, 김소희 오스트리아 세프 등 전 세계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빛낸 한국인들을 포함, 윤행자 한독간호협회장, 황춘자 재독대한간호사회장, 고창원 재독한인 글뤽하우프(파독광부단체) 회장 등 40여 명의 특별초청 인사도 참석했다.

재외동포들도 대거 취임식에 참석했다. 재일민단 1천100여 명을 비롯한 각국 한인회, 한상 등 세계 각지에서 총 2천157명의 재외동포가 참석했다.

재외동포 단체장들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민대통합시대를 열어 줄 것을 희망했다.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글로벌시대에 720만 재외동포를 어떻게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지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200만 재미동포는 늘 고국이 잘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철저한 안보와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해 어떠한 도발

과 침략에도 굳건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은 "일본에 사는 동포로서 최근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찬식 재중국한국인회장은 재외동포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인 의료·교육 부문의 지원이 늘어나기를 희망했고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재외동포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근하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은 "첫 재외선거를 통해 탄생한 대통령이라 기대가 크다"며 "복수국적 확대를 비롯해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용복지·안보·창의교육 방침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복지·고용, 한반도 평화·안보를 국정운영의 양대 키워드로 설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문화국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국민 맞춤형 복지'가 중심축이 된다.

창조경제를 앞세운 것은 임기 초반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



3



4

로 창조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복지 확대를 함께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역대 정부가 주로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에 국정목표를 맞춘 것과 달리 고용과 복지를 국정의 1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기조가 뼈대가 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커진 현실을 감안,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기본 방향성을 지키면서도 안보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안전과 통합 사회', 개인의 끼와 창의력을 살리는 '창의교육·문화국가'도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됐다.

140개 국정과제로 공약 드라이브

140개로 추려지는 국정과제에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핵심 복지공약이 최우선 반영됐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로 연간 27조 원의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윤곽이 확정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핵심 여성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제2의 창업붐'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융·복합과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도 핵심 일자리 과제로 제시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횡포와 정부의 규제 과잉을 해결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조직 개편 로드맵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강한 수술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요소 변수까지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국방분야 세부 이행계획에 비중이 더욱 실렸다는 전언이다.

창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대학교 반값등록금 실현 등 교육 과제들도 비중 있게 담겼다. 교육분야의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의 경우 2년가량 연구·시범운영을 거쳐 내후년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행복 영사서비스' 프로젝트 가동을 통한 양질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720만 재외동포 역량 결집을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동포 차세대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교육 및 우리 역사·문화 교육에 대해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

1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월 25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수석들이 배석한 가운데 첫 업무를 수행한 뒤 웃음 짓고 있다.
 2 뮤지컬 배우 최정원(왼쪽부터)·가수 인순이·재즈가수 나윤선·국악인 안숙선 씨가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3 한복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희망의 열리는 나무' 행사에서 국민의 소망이 적힌 복주머니 속 글을 읽고 있다.
 4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희망과 기원을 담은 메시지를 '희망꽃이'함에 넣고 있다.



한국 경제의 밑거름 파독광부 50주년

기념 전시회, 다크 제작 등 광부 역사 조명

독 일로의 광부 파독이 올해로 50주년이고 한독수교 1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이 땅의 젊은이들은 독일인들이 기피하던 광부와 간호사가 되기 위해 10대1이 넘는 경쟁을 치렀다. 광부 파독은 1963년 12월부터 1977년 10월까지 14년 동안 이뤄졌으며 7천936명이 독일의 광산에서 일했다. 간호사 1만1057명으로 합계 2만1천여명이 국내에 송금한 돈은 한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이들은 독일에서 한국 월급의 7배 이상

을 받았고 봉급의 80~90%를 고국에 보낼 정도로 약바리같이 산 경제발전 주역들이다.

조국 근대화에 헌신한 파독 광부·간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1965년부터 1975년까지 국내에 송금한 액수가 모두 1억153만 달러(1천105억원)라고 밝혔다. 1966년의 경우 광부와 간호사가 보낸 돈이 총 수출액의 1.9%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파독 광부 대부분은 적은 연금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파독 초기 독일이 선진국이라 광산도 안전할 것이라고 여긴 광부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기계화된 독일 광산이 한국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었다. 각종 기계나 장비로 인한 사고가 잦았기 때문이다.

지하 1000~1500m의 갱도는 사시사철 섭씨 35도의 열기를 내뿜었다. 먼지가 가득해 앞을 보기도 힘들었다. 작업도구도 인간의



- 1-3 1960년대 독일에 광부로 파견나간 이들이 보내온 외화는 조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됐다.
- 4 1966년 1월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파독 간호사들이 마중 나온 현지 한인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 5 김경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재독한인 글뤽아우프회 회원들이 파독광부기념회관 광산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6 글뤽아우프회는 파독 5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를 만들어 모국과 후손들에게 파독광부의 역사를 알릴 계획이다.

인내를 시험했다. 갱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는 작업도구는 50kg이 더 나갔다.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 파독 광부들은 갱도 사고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면 “머나먼 타지에서, 그것도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고 토로한다.

파독 광부들 중엔 대학교수등 사회적으로 성공해 독일에 살거나 미국 등으로 이주한 이들도 있지만 자신이 ‘파독광부’였음을 숨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후손을 합치면 파독광부와 간호사 가족은 5만여 명에 이른다. 파독 광부·간호사들 중 일부는 귀국해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다. 독일마을은 2003년 입주 이래 광부 출신 12명, 간호사 출신 28명이 터를 잡았다. 독일인 남편 6명도 한국인 아내를 따라왔다.

이 마을은 연 1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경기 양평군도 2015년을 목표로 독일타운을 짓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한 이들 산업전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이다.

눈물겨운 성공신화, 재독한인 발자취 조명

광부 파독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 재독 한인광부 단체인 ‘글뤽아우프회’ 주최로 올해 독일에서 열린다. 글뤽아우프회는 지하 갱도로 내려갈 때 ‘무사히 지상에서 보자’는 뜻을 지닌 광부들의 인사말에서 따왔다.

오는 5월 4일 독일 구광산 지역인 에센에서 개최될 기념식에는 한국과 독일은 물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파독 광부와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광부 파독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글뤽아우프회의 전통적인 노동절행사를 겸하게 되는 이번 50주년 기념행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줄페라인에서 열리며, 1부 기념식, 파독산업전사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감상, 뒤셀도르프, 쾰른, 에센, 프랑크푸르트, 그 외 지역포함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어

머니 여성 연합합창단, 만찬, 2부 순서로 전문 성악인 무대, 한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는 울산예총의 한국전통예술 특별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파독 광부들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정부 관계자들도 기념식에 초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초청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이 참석할 경우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을 기억하는 광부들에게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난을 못 이겨 광부를 독일로 보낸 50년 전 고국과 이제는 독일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경제대국이 된 오늘의 고국을 생각하는 자리도 될 전망이다.

고창원 글뤽아우프회 회장은 “후손에게 파독 산업전사들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50주년을 맞아서 파독 광부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한 자료를 독일 각 도시와 국내에서 전시하고, 파독 50년사를 담은 한국어판·독일어판 책과 다큐멘터리도 제작한다”며 “파독 광부의 역사를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조형물 건립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파독 광부 모임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도 올해 전시관 건립 등을 통해 50주년을 기린다.

그는 “독일에서도 광부 파독 50주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파독 광부들은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자녀들은 아버지가 조국과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깨닫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파독 광부 출신 동포들은 모국이 파독 광부의 역사에 관심이 낮아 안타까워한다. 그들은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의 이야기는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산 역사’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제현 독일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재독한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행사를 통해 든든한 재독동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재독한인총연합회는 물론, 모든 주요한인 단체들과 한국지상사들이 참여하는 범 한인사회 차원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



‘기회의 땅’ 브라질 이민 성공 50주년

패션 산업 주도 5만여 한인 건설한 공동체 형성

1962년 12월 18일 103명의 농업이민자를 태우고 부산항을 떠난 네덜란드 선박 치차렌카(Tjitjalenka) 호는 2개월 가까운 긴 항해 끝에 1963년 2월 12일 브라질 산토스 항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62년 3월 해외이주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최초의 공식 이민이자 브라질에서 한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차 이민 이후 1963년부터 1966년까지 5차례에 걸쳐 1천300여

명의 농업 이민자가 브라질 땅을 밟았다. 70년대 초반에는 남대문과 동대문에서 1천400여 명의 봉제기술자들도 합류했다. 현재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인은 약 5만 여 명. 이들은 브라질 패션산업의 60%를 장악하고 있고, 그 후예들은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으로 진출해 브라질의 주류사회로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의류업 장악, 주류사회 진출 활발

1980년부터는 연고자 초청 등을 통한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브라질 한인 사회는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로(Bom Retiro)와 브라스(Bras)를 중심으로 5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건설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한인들의 브라질 정착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의류업이다. 농업 이민자 생활을 정리하고 대도시로 향한 한인들은 이주



- 1 지난 2월 11일 브라질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 축제에서 한인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테마로 한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 2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을 맞아 2월 1일 상파울루 시립 극장에서 기념음악회 '오페라 인 콘서트'(Opera in Concert)가 열렸다. 음악회에는 이화여대 석좌교수이자 성신여대 명예교수인 소프라노 이규도 씨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정상급 남녀 성악가 8명이 무대에 올랐다.

할 때 가져온 옷을 내다 팔았다. 이것이 한인 의류업의 시초라고 한다.

한인들이 의류업에 뛰어든 것은 1971년부터다. 당시 500가구의 한인 가운데 10가구 정도가 의류업을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한인들이 운영하는 의류업체가 본격적으로 늘어났고, 30여 년이 지난 현재는 한인 동포의 80% 정도가 의류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한인들의 의류업은 브라질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업체는 약 3천 개로 추산된다. 중·고가 여성 의류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고, 직·간접 고용 인력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민 41년차로 중견 의류업체를 이끄는 제갈영철(59) 대표는 “브라질이 세계 5대 패션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인 동포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면서 “한인 의류업체들의 성장은 인플레이션 안정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에 큰 몫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민 1세대가 의류업으로 기반을 닦았다면 1.5세와 2세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로 진출하며 새로운 이민사를 써가고 있다.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을 이어받은 1.5세와 2세들은 법조계와 의료계, 학계에 활발하게 진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음악, 영화, 문학, 미술, 광고, 패션 등 문화예술 분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브라질이 세계 6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느는 점은 새로운 50년을 기약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브라질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2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1세대의 성공적인 정착과 1.5~2세의 창의적인 성장, 한국과 브라질의 우호관계 강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성공 스토리를 써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니발 ‘한국 테마’ 등장… 싸이도 참여

브라질 한인사회는 올해 50주년 기념식, 기념 음악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민을 기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지구촌 최대 규모의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 카니발에도 한류가 들어간 것.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 축제에 한국을 테마로 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가 하면 ‘월드 스타’ 싸이가 특유의 파워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2월 11일 밤 리우 시에 있는 삼바 전용 경기장인 삼보드로모(Sambodromo)에서는 한국을 테마로 한 퍼레이드가 웅장하고 화려하게 펼쳐졌다.

퍼레이드의 주체는 이노센시스 데 벨포드 호쇼(Inocentes de Belford Roxo) 삼바 학교. 이 삼바 학교는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한강의 7개 물결’을 주제로 대규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용과 호랑이 등 한국의 상징물로 꾸민 7대의 대형 차량 사이로 4천200명의 삼바 댄서들이 1시간 남짓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리우에 앞서 상파울루에서는 이날 새벽 유니도스 빌라 마리아(Unidos Vila Maria) 삼바 학교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주제로 50년에 걸친 양국 간 우정을 표현했다.

5천년 역사와 한국 문화, 음식, 한글을 소개했다. 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IT 강국 부상 등 한국의 발전상도 압축적으로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삼바의 본고장인 리우의 카니발 퍼레이드는 브라질 최대 방송사인 글로벌 TV로 전 세계 160여 개국에 방영되고 1억 6천만 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동반성장 위한 공동체 구축”

미리 보는 제14회 세계 한인회장대회

한민족 공영을 위한 한민족 공동체 구축 기반 조성 과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인회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올해 6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114개국에 흩어져 있는 700여 개의 한인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재외국민 선거제도, 차세대 교육, 권익신장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동포리더들의 모임 중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대회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초청, 내·외동포 간 및 한인회장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인회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해왔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업을 위한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주목을 받으면서 동포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의 수장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회 공동대회의장으로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공태 단장과 재유럽한인총연합회 박종범 회장이 맡는다. 박종범 회장은 지난해 공동의장 선출 직후 “우리 동포사회의 단합과 화합, 발전의 방법을 1년간 고민하겠다”는 소감을 밝힌바 있다

한인회 네트워크 구축과 확대

‘한인회 네트워크 구축과 확대’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견인을 목표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대회에는 내·외 동포간 및 한인회장 간 상호 이해를



제14회 한인회장대회는 대회 기간 중에 전 세계 9개 지역별 한인사회 현안토론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증진하고,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국제 회의를 개최하는 등 OECD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인회장들에게 알려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한인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올해 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코리아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사업의 업그레이드 현황을 알려 한인회를 통한 동포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신장 및 국가발전 원동력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경근 이사장은 “대회를 통해 한인회가 동포사회와 모국을 잇고, 유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 세계 114개국에 흩어져 있는 700여 개의 한인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오는 6월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은 이미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상생(相生)’의 관계이며, 지금은 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 할 때”라며 이번 대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 공동의장인 오공태 제일민단 단장은 “한인회장 대회가 국내에서 14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국내에 재외동포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며 “한인사회가 한인회를 중심으로 뭉치고 또 모국과 한인사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에 더 충실 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번 대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사회 현안 집중 논의’

대륙별 한인연합회 회장 중심으로 구성된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회도 서울에서만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행사의 집중도를 높ی겠다는 취지다.

2년 전까지는 개회식 및 주요 포럼과 토론을 서울서 열고 지방

으로 이동해 지역사회와 한인회 간의 교류시간도 가졌다. 한인회장들이 지방을 방문함으로써 해외에 지방의 우수 자원을 소개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서울과 지방을 오가다 보니 행사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운영위원회와 동포재단은 지방으로 이동해서도 한인사회의 현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지만 참석률이 매우 낮았고 토론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각 지역 한인사회 현안 발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회 첫날에는 각 정당별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포럼을 열어 ‘재외동포 끌어안기’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을 소개하고 한인회장들과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모임을 열어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지역별 토론 결과를 가지고 전체회의를 열고 회장들의 심사일반 모은 성금으로 장학금 전달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한인회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해 전체 회장에게 알리는 시간을 통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인회장대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토의도 열린다. **창**

논문 공모전으로 ‘재외동포 연구’ 저변 확대

재외동포재단, 우수 학위논문 5편 시상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2012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시상식을 열어 우수 논문 5편을 시상했다. 사진 좌측부터 강주원, 강희영, 김태진, 손미경, 이정선

재외동포가 720만 명에 이르고 재외국민참정권 실시 등으로 동포사회와 모국의 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재단은 ‘학위논문’으로서 재외동포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수 학위논문 시상식을 최근 열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열린 ‘2012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시상식에서 “남북한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하겠다”며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를 치하했다.

이번 수상은 국내외서 재외동포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새롭게 연구에 뛰어드는 등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수논문상 5편은 ▲강주원, 「중·조 국경 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북한사람, 북한화교, 한국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박사학위논문, 2012. 8 ▲강희영, 「한인여성디아스포라의 이주경험과 트랜스로컬 정체성에 관한 연구 - 구소련권 유학이주여성의 한국체류경험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2012. 8 ▲김태진,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주체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석사학위논문, 2011. 1. ▲손미경, 「‘문화플랫폼’으로서 도쿄·오사카 코리아타운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논문, 2013. 2. ▲이정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 연구 - 역사복원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논문, 2011. 8 등이다.

수상자들에게는 300만 원씩의 학술 장려금이 수여된다. 재단은 올 상반기에 입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재외동포 전문가 발굴과 재외동포 조사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을 제정했다. 이번 논문공모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 사이에 국내외에서 발표, 학위수여 또는 심사완료 된 재외동포 관련 석·박사 학위论문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국내외에서 응모한 총 12편의 논문을 지역·분야별 전문가들이 엄정하게 심사해 우수논문상 수상작 5편을 최종 선정했다.

김경근 이사장은 “학위논문상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재외동포 분야를 연구하는 전공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길 바란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외동포 연구저변 확대를 통해 재외동포사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재외동포 관련 사항들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적 의견들을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재단사업 추진방향 등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위논문상 수상작들은 코리아넷(www.korean.net) 자료실(동포자료실)에서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재단은 금년 상반기 학술회의 등을 통해 입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



강주원 _ ‘중·조 국경 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강주원 씨는 학위 논문에서 중국 최대 국경도시 ‘단동’ 지역에서 북한사람, 북한화교, 조선족, 한국사람 등 4집단에 대한 다양한 삶을 조명하며, 이들이 한국, 북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인이 입고 다니는 옷 중에 상당수가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남·북 경제 교류의 중심에는 단동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희영 _ ‘한인여성디아스포라의 이주경험과 트랜스로컬 정체성에 관한 연구’

강희영 씨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 동포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구소련권의 동포들에 대해 ‘고려인’이란 용어 대신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면서 이주, 이산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이들에게 한국계라는 정체성은 삶의 치유과정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고향에서는 배제원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및 인식체계는 러시아인이나, 한국사람 얼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제시하며, 동포들도 수용하기 힘든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제기했다.



김태진 _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

김태진 씨는 재미한글학교 교육주체별 중요도 -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주체의 요구와 대안을 모색했다. 한글학교 이용자들은 전문기관으로서 한글학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와 관련, 논문은 민족적인 부분에서의 집중도 중요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학점 인정 등 미국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미경 _ ‘문화플랫폼으로서 도쿄·오사카 코리아타운 연구’

손미경 씨는 ‘생업공동체’에서 ‘문화공동체’로 거듭나는 일본 내 코리아타운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코리아타운의 경제적 활성화가 지속적이고 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적 기능과 역할이 자양분이 돼 지속적으로 뒷받침 될 때 선순환 구조로 경제적 활성화 또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디아스포라 공간의 ‘문화플랫폼’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 요컨대, 논문은 ‘문화플랫폼’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코리아타운이 향후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과 방향, 현재 코리아타운을 둘러싼 문제점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선 _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 연구’

이정선 씨는 고려인 문학의 산실 역할을 한 <레닌기치>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의 역사 복원 양상을 고찰했다. 그는 “고려인 소설을 살펴보는 것은, 망각된 기억을 복원하면서 형성되는 고려인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작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틀 속에서 산출된 고려인 문학은 겉으로는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려인 문학이千篇일률적인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려인 문학의 고유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에 더욱 세밀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

차세대 동포 모국 체험과 이해를 돕다

재외동포재단 2기 대학생 자원봉사단 워크숍



- 1 재외동포재단은 2월 7일부터 8일까지 영종도 오션사이드 호텔에서 2기 대학생봉사단 워크숍을 열었다.
- 2 2기 봉사단은 자체 워크숍을 통해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고 단합을 위한 친목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월 7일부터 8일까지 제 '2기 OKF (Overseas Koreans' Friends) 대학생봉사단' 워크숍을 열어 자원봉사단의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봉사단원 간의 팀워크를 도모했다.

대학생 봉사단원은 세계한인청소년모국연수,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해 통역하거나 행사진행을 지원하고 재단 선발 모국 유학 장학생의 도우미 등 국내외 동포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지난해 동포재단은 1기 봉사단을 발족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각종 차세대 행사에서 앞장서 리더로 활약하기도 하고 초청 동포 장학생의 모국 생활 정착을 돕는 등 눈높이에 맞춘 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 1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더 세밀화된 봉사가 가능하도록 워크숍을 통해 봉사단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워크숍은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오션사이드 호텔에서 열렸다. 7일 숙소에도착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특강과 단원 자체 워크숍이 열렸다.

단합 통해 봉사 활력을 고취

김중완 동포재단 사업이사는 봉사단원들의 동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외동포사회 전반 이해'라는 제목으로 재외 동포 현황과 이민사 및 모국과의 연계 등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단원들에게 "전 세계 720만 동포와 모국과의 관계는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미식축구 스타 하인즈 워드 등 많은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모 팀장의 재외동포재단 사업 소개 및 차세대팀에 대한 소개에 이어 송진호 YMCA 협력처장은 '지구시민, 지구시민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지구촌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어떤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지를 알렸다.

송 처장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는 이제 상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수 없게 됐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차세대를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봉사단원들의 열린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포재단은 1기 중 우수봉사단원 6명을 선발해 일본으로 동포

사회 탐방 및 연수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2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알려 봉사단원의 의욕을 고취시켰다.

워크숍에 참가해 2기 봉사단장으로 선출된 박정영(중앙대학교) 학생은 “재외동포에 대해 막연했던 것을 소양교육을 통해 뚜렷이 알게 됐다”며 “봉사를 통해 동포 청년들과 교류할 것을 생각하니 설레인다”고 소감을 말했다.

저녁 식사 후 단원 자체 워크숍에는 1기 선배 단원들이 참석해 노하우를 전해주기도 했다. 조엘레나 1기 단장은 “1년간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다 보니 글로벌마인드도 생겼고 세계 곳곳에 친구가 생기는 귀중한 체험이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고 전했다.

이민사 박물관 견학 등 ‘동포 이해’ 심화

8일에는 2기 봉사단을 이끌 봉사단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발했다. 봉사단장에는 박정영(중앙대), 하예나(한국외국어대) 학생이 선출됐다. 이어 기획팀장에는 한민희(성균관대), 홍보팀장에는 최유민(창원대), 박이리나(성균관대) 학생이 뽑혔다.

2기 봉사단은 교류 분야와 캠퍼스 활동 및 온라인 활동 등 3가지 분야에서 활약할 전망이다. 교류 분야는 세계한인청소녀대학

생모국연수 참여를 비롯해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동포 초청행사에서 통역 관련 봉사도 하게 된다.

대학 캠퍼스 활동은 구체적으로 모국 유학을 오는 동포 장학생의 공항 마중을 비롯해, 멘토 및 수강신청 등 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 등을 돕게 된다.

온라인 활동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각종 행사 활동의 사진이나 글 또는 동영상을 알리는 소셜네트워크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이어 인천 월미도에 위치한 이민사박물관을 찾아 이민의 역사와 초창기 이민자들의 고된 삶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민사박물관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이민가 고생하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도 했던 선조들의 생활상과 당시의 기록과 용품 등을 둘러보며 한민족의 강인함을 배우기도 했다.

동포재단은 향후 추가 워크숍 및 봉사단 자체 모임 등을 통해 봉사단의 활동을 안내하고 팀워크를 고취할 계획이다.

2기 자원봉사단은 1년간의 활동을 거쳐 2013년 11월에 해단식을 갖게 되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전달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해외 봉사기회 특전도 부여할 예정이다. **창**

대학생 자원봉사단 리더



왼쪽부터 한민희, 하예나, 박정영, 박이리나, 최유민

봉사단장

박정영, 하예나 1기 선배들이 활동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부담도 있지만 노하우를 물려 받아서 분발하겠다. 무엇보다도 봉사단 전체가 잘 단합이 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친밀감을 높이고 봉사의 경험도 나누어 1년간 모두가 즐겁게 봉사하도록 앞장서겠다.

기획팀장

한민희 자체적으로 연간 봉사 스케줄을 만들어 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동포재단 초청 장학생과 봉사단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전체 단합대회나 워크숍을 열고 동포재단 직원 및 봉사단체 강사도 초빙할 생각이다.

홍보팀장

최유민, 박이리나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를 다양화하겠다. 홈페이지에 봉사관련 글과 사진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겠다. 단원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같은 재외동포로서 유학생할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살려 후배들이 잘 적응하도록 돕겠다.

720만 재외동포의 창 ‘코리안넷’ 새단장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국정과제 및 국가 브랜드위원회 과제로 선정, 진행됐던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인 ‘코리안넷(www.korean.net)’을 새롭게 재편하여 1월 16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최종 구축이 완료된 코리안넷은 단순 정보 전달을 탈피해 재외동포 관련 주요뉴스 및 지역뉴스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은 물론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민원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고, SNS와 같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온라인에 익숙한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 전용 SNS인 ‘코리안톡’을 구축해 재외동포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각 국가별, 지역별 한인단체 홈페이지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록 시스템을 구축해 재외동포단체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안(http://study.korean.net)’의 경우에는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 기반으로 확대 구축했다. 또, 재외동포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동 스마트 앱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문법·단어학습은 물론 동요를 통한 학습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번 구축에서 ‘사이버 한상넷(www.hansang.net)’도 정부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의 경제 관련 통합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전문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일대일매칭 등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한상들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김경근 재단이사장은 “코리안넷이 72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결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재외동포 전문 포털사이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재단은 그간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온라인에서 하나가 되고,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서비스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신입직원 4명 채용

재외동포재단은 최근 4개 부서에 신입직원을 4명을 채용했다. 신입직원은 교육사업팀에는 유지연 대리, 세계한상센터 박한울 대리, 조사연구팀 김나영 대리, 홍보문화팀 김소영 대리다. 신입직원은 재외동포 총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동포재단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연수를 거쳐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새내기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들은 “동포사회와 모국을 잇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포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 정신으로 근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왼쪽부터 유지연 교육사업팀 대리, 김나영 조사연구팀 대리, 박한울 세계한상센터 대리, 김소영 홍보문화팀 대리

아프리카 재외동포단체 · 한글학교 현황 파악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는 아프리카지역 재외동포 단체와 한글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케냐 나이로비 등 3개 지역을 돌아보았다.

주요 일정으로는 남아공 및 케냐 지역 한인단체장,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21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기총회에는 아프리카 중동 각 지역 전·현직 아중동지역 한인회장 및 인사 60여 명이 참여했다. 총회는 재외동포재단 축사, 주케냐한국대사 격려사에 이어 준비위원회 경과보고, 재외국민보호법 토론회 경과 보고, 2012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2013년도 사업 계획 및 2012년 연합회 총회 결의문 성과 리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재외동포재단 사업 소개, 2013년 총회 안건 별 토론 및 결의를 하고 2014년도 총회 개최지 선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을

협의했다.

김 이사는 축사에서 “2008년 창립된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는 그간 3만여 동포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 아중동지역 동포사회는 해가 갈수록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아중동지역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남아공 한글학교 관계자 간담회에서 김 이사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말과 글, 전통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재단도 재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등 한글학교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정수 기획이사는 남아공 및 케냐 지역 한인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통문화 유지·보존과 차세대육성을 위한 재단사업 추진사항 등을 설명하고, 차세대들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아프리카동포사회가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재중국 한글학교 교사 연수 격려 김경근 재단이사장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월 10일 중국 곤명에서 개최된 재중국한글학교 교사연수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및 중국을 방문했다. 김 이사장은 7일부터 8일까지 나고야와 동경에서 재외동포단체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일동포사회 현안을 파악하고, 9일에는 동경 오쿠라호텔에서 개최

된 재일민단 신년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민단은 재일동포 차별에 맞서는 등 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으며 한국 경제 발전에 물심 양면으로 도왔다”며 “민단이 앞으로도 재일 동포사회의 중심 단체로서 활약하며 모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10일에는 중국 곤명에서 개최된 재중국한글학교 교사연수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동 지역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글학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했다.

김 이사장은 11일 주중국대사관을 방문하고, 재중국한국인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동 지역 동포사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영어 말, 한글 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많이 겪게 된다. 왜 한국말을 꼭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기억, 니은, 가, 나, 다, 라는 어렵고 낯선 외국어일 뿐이다.

미국 현지에서 나고 자라가는 한국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한국어와 영어의 중간언어인, 그야말로 '콩글리시'를 듣다보면 재미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콩글리시가 넘쳐나는 대화

5년 전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갔던 가족이 있다. 일이 잘 풀려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 주 전 주일, 교회에서 낮이 익는다 싶은 남자아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워낙에 조기유학으로 인기 좋은 동네인지라 '또 하나 보냈군' 하는 생각만 한번 하고 지나쳤다.

새로 온 녀석이 어찌나 말이 많고 시끄럽던지, 다시 한 번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옆에서 4살이 지난 아이가 지껄이는 말을 알아들을 턱이 없는 이 녀석은 내게, "애 말이 왜 이래요?" 고 물어왔다.

나는 속으로 "왜 이렇긴 이놈아. 아직 아기니까 그렇지. 별걸 다 궁금해 하네" 라며 아이를 유심히 쳐다보며 물어 보았더니 5년 전에 떠났던 가족의 아이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몸이 두 배가 된 것만 빼고는...

한국에서 이민 온지 얼마 안 되는 '신선한 한국 아이들'은 참 말도 잘 한다. 빠르고 눈치 있고 목소리 나게 보여야 인정받는 한국 문화 탓인지, 같은 나이 또래라 하여도 이곳에서 나고 자란 한국 아이들과는 많이 차이를 느낀다.



뭐랄까...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워도, 확실히 한두 살 위로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조숙하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자랐던 나 역시, 이곳에서 자라가는 한국 아이들보다는 갓 한국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더 친숙한 느낌이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단어며 사자성어까지 들먹거리며 이야기해도 너무 잘 통하고, 유머감각도 비슷한 듯하고, 무엇보다 반응이 빨라 속이 시원하다.

그에 반해 일곱 살 난 나의 아들의 말에서는 무슨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뭘 했다는 건지, 할 거라는 건지, 제가 했다는 건지, 저를 그렇게 했다는 건지, 아들의 말에는 모든 조사가 '가'로 통한다.

“아빠가, 엄마가, 돈가, 브랜드가...”

영어와 한국말 나오는 대로 뒤죽박죽이다.

“아빠, 캔 유(Can you) 업어줘 미(me)?”

“짜커(soccer) 놀아도 돼?”

“라면 이즈 투 매워(Ramen is too hot)”

어느때인가는 한국 역사 드라마를 빌려다 TV로 보는데 어느 장수가 부하들에게 '진군하라, 진군하라'를 외치자 보고 있던 아들이 어마를 보며 묻는다 “친구하라, 친구하라?”

'여름성경학교'는 '아름다운 학교'가 되어버렸고, '거실'인지 '교실'인지 구분이 되질 않고, 영어말, 한글말이란 단어가 자연스레 생성된다. 양말은 입고(wear socks), 머리는 빨고(wash hair) 식으로...

아들은 종종 아빠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옆집 아저씨 보듯이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조기 모국어 교육이 중요

이중 언어를 감당해 내야만 하는 이곳 아이들의 고충 또한 이해해줘야 하지만, 모국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아이 옆에 앉혀놓고 한국어 가르치다 '미움의 강으로 흘러가곤 했다'던 이웃집 선배 아줌마의 명언이 나의 현실이 되어 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한국말을 하지 않으려 든다는데, 이렇게 미루기만 하다 영영 한국말을 가르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심 불안해진다.(아니, 매우 불안하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 두면 아이들에게 있어 모국어는 점점 먼 나라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아직은 어려서 영어와 한국어를 적당히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영어만을 쓰게 될 것이다. 많은 한인 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집에서조차 가족들과 영어로만 대화를 하려고 든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 영어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것. 나이를 먹어 이도 저도 아니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면 어릴 적에 우리말 교육에 부모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의 이런 속은 알지도 못한 채, 아들 녀석은 오늘도 딱 제 수준의 농담을 하며 깔깔거린다.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말하면 아이 스크림 같아~~”

(icecream → I Scream, 아이스크림 → 나는 비명 지른다)

그래 이눔아,

너 때문에 내가 스크림을 한다!! **장**

임혜경 미국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브라질에 ‘한류 확산’ 숨은 공신

‘한국 전도사’ 브라질 동포 김유나 씨



김유나

2008년에는 ‘살아있는 브라질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한국 주재 브라질 대사관에서 브라질에 관심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기획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한국 만화’ 에 대한 다큐를 찍으러 방한했으며 이런 다양한 이력을 바탕으로 브라질 유력 일간지로부터 ‘한국 홍보대사’ 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다.

김 씨는 카니발에 한국을 테마로 출전한 팀에서 한국 관련 소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난감해하자 한국으로 날아와 남대문과 동대문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값싸고 질 좋은 전통 소품 등을 구해주기도 했다.

그는 “카니발 출전 팀당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사람이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샷갓과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한미연)의 브라질 지회장이기도 한 그는 브라질 한인 차세대에게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한미연 브라질 지회는 2007년에 결성됐고 현재는 8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한인 차세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을 서로 돕고 정체성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부터는 한국교육원과 협력해서 한국어 강좌를 한미연 회원들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개설한 ‘우리기업 진출센터’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종사하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강의도 맡고 있다. 매월 업체를 선정해 현장 방문해서 현지인 종업원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느린 브라질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상사의 요구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라며 그는 “반대로 한국 직원에게 브라질 문화도 소개하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 파울루 카니발에서 ‘한국’ 을 테마로 출전한 ‘우니도스’ 팀의 퍼레이드카에 탑승해 행진을 한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2월 11일 브라질 최대 축제인 카니발에서 상파울루와 리오 양쪽의 두 개 경연팀이 한국을 주제로 퍼레이드를 벌이는 장관이 연출됐다.

이 가운데 퍼레이드카에 올라 관객들에게 환한 미소와 손짓을 보낸 경험을 잊을 수 없다는 브라질 한인 차세대 김유나(30) 씨는 브라질 정부도 인정하는 ‘한국 전도사’ 다.

그는 브라질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펴내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차세대 동포다.

여섯 살 때인 1988년 부모를 따라 이민 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브라질에서 다닌 김유나 씨.

그는 2004년 교황청립 상파울루 가톨릭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대학원을 마친 뒤 곧바로 포르투갈어로 된 ‘젊은 한국’ 등 다양한 한국 관련 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면서 한국 전도사가 됐다.

낡은 일기장

연미나(미국) 2012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서재에 꽂혀 있던
낡고 작은 공책 하나
내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
'중구 인현동 1가 57번지, 광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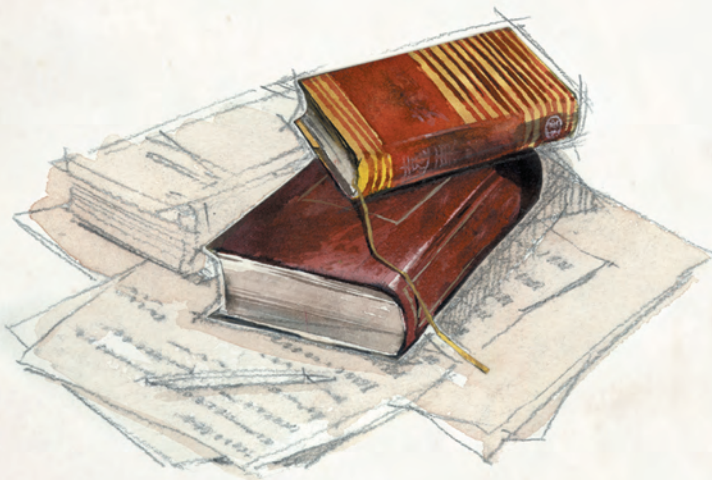
60년대 서울 어느 모퉁이
라디오 소리 흐르던 광전 전파사
야박한 서울 살이,
하루 백 환을 벌어 백 환 빵을 사먹고
밥이 배고픈 가난한 일기를 쓴다.

하늘로 가신 엄마
그리워 그리워 엄마를 부르는 일기
일기장에서만 울 수 있는 엄마
고향에 있는 어린 동생 생각에
코일을 감고 또 감는다.
뾰족한 펜촉으로 그려진 전기회로도
아버지의 회로도 속
세월은 코일 속에 감겨져
잊혀져 있었나보다.

시집가 버린 딸
서른아홉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가슴 속 울고 있던 소년은
누가 안아주었을까
울며 넘기는
빛바랜 일기장

내 삶 어딘가엔
아버지의 일기가 적혀있다는 것을
내가 서 있는 이곳
빛바랜 종이를 수없이 넘겨
검손한 열매로 맺어가야 할
끝나지 않은 아버지의
내 삶 속 일기

우리 집 서재
낡은 일기장 속
아버지
내 영원의 친정집
달려가
안아드리고 싶은
빛바랜 일기장 속
나의 아버지





겨울 햇살 찬란한 남도의 보석 **고흥반도**

해안 따라 펼쳐지는 비경 삼매경

고흥반도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해안은 구불거리고 산은 낮지만 오르기 힘들고 사이사이를 들판이 채운다. 제각각 다른 매력이지만 역시 으뜸은 해안 풍경이다.

지도에서 보는 고흥은 육지로 고개를 들이밀고 오르는 거북 같다. 동강면·대서면은 머리, 남양면·과역면은 목, 두원면·영남면은 앞다리, 거금도·나로도도 뒷다리를 이루고 있다.

이런 고흥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지만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들판을 감상하기에는 점암면 들녘에 병풍처럼 서 있는 팔영산(608m)이 가장 좋다. 1봉부터 8봉까지를 오르내리

는 동안 각기 다른 풍광을 전하기 때문에 산행의 맛도 좋다.

녹동항은 거북의 왼쪽 뒷다리가 이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소록대교(길이1천160m)를 넘으면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서린 소록도가 나오고, 소록도를 지나 도보 통행이 가능한 국내 첫 복층형 해상 다리인 거금대교(길이 2천28m)를 건너면 국내에서 열 번째로 큰 섬인 거금도에 닿는다.

녹동항에서 가장 분주한 곳은 녹동수산물시장이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사려는 사람들과 상인들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방문객이 해산물을 고르면 상인들은 능숙한 칼 놀림으로 즉석에서 회를 친다. 바다의 향과 맛이 그대로 담겨

있는 생선회와 해산물은 시장 뒤편의 초장집에서 맛볼 수 있다. 수산시장에서는 낮에도 갓 잡은 해산물을 경매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거금도에서 찾은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

거금도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하며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김일 체육기념관에 닿는다. 이곳은 1960~70년대 박치기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고(故) 김일 선수의 고향으로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체육관에는 김일 선수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이 전시돼 있다. 씨름대회에 참가해 송아지를 받은 모습부터 안토니오 이노키와의 숙명적인 대결, 이마에 피를 흘리고 붕대로 감싸면서도 경기에 몰두했던 모습 등 그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들이다.

금탑사로 향하는 길은 천천히 거닐며 사색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천연기념물 제239호인 비자나무 숲을 끼고 있는 오솔길이 운치있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겨울 칼바람에 잎을 송두리째 잃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쓸쓸한 나무들을 지나면 모습을 드러내는 비자나무 숲은 봄날의 청량감을 전해주는 듯 싱그럽다. 금탑사 주변으로는 비자나무 3천300여 그루가 살고 있다.



우주의 꿈이 시작되는 '나로우주센터'

고흥은 우주발사체 발사기지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곳이다.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과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우주천문과학관이 있는 '우주항공의 메카'이다.

야외 전시장에는 우주발사체 '나로호' 모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 날렵한 모습이다. 주변으로는 GPS 상시관측소와 태양열 집열판이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하는 태양정원, 해시계 등이 설치돼 있다.

우주과학관은 기본 원리존, 로켓존, 인공위성존, 우주탐사존, 기획전시관, 4D 돔상영관, 우주과학교실, 다목적홀로 구성돼 있다. 구역을 하나씩 지나며 우주에 관한 상식을 넓히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참]**



- 1 고흥은 2천600리에 달하는 꼬불꼬불한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고 내륙은 수려한 산세를 자랑 하는 고장이다.
- 2 녹동항에서 가장 분주한 곳은 녹동수산시장이다.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사려는 사람들과 상인들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 3 고흥은 육지로 고개를 들이밀고 오르는 거북 같다. 동강면·대서면은 머리, 남양면·과역면은 목, 두원면·영남면은 앞다리, 거금도·나로도느 뒷다리를 이루고 있다.
- 4 고흥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과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우주천문과학관이 있는 '우주항공의 메카'이다.
- 5 거금도에는 김일 체육관이 있다. 체육관에는 1960~70년대 박치기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고(故) 김일 선수의 활동사진이 전시돼 있다.



유럽 한글학교 교사들 헝가리서 세미나

유럽 각국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내달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한글 교수법을 논의한다. 유럽한글학교협의회는 3월 22~2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013년도 한글학교 교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럽 전역에서 동포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130여 명의 교사와 국내 재외동포 교육 관계자 및 재외동포 재단 직원 등이 참가해 학술 논의와 교류의 기회를 마련한다.

한편 유럽을 시작으로 각 대륙별·국가별 한글교사 세미나가 연내 이어질 예정이다. 캐나다한국학교총연합회와 오세아니아 한글학교협의회가 각각 5~7월 중 모여 의견을 나누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7월 하와이에서 '이민 110년과 한국학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주한국학교 연합회가 8월 학술대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중국, 중남미, 동



남아, 독립국가연합(CIS), 아·중동 지역 한글학교 교사들도 하반기 중에 연수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8월 세계 한글학교 교사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7~8월 중 중국 조선족학교 교원과 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도 각각 국내로 초청할 계획이다.

독자후기 _ 김현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에 이민 온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와서 함께 노력해 나름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도 가까워서 자녀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가 돼 한국의 조부모 밑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킬까 아니면 조금 무리를 해서 국제학교를 보낼까도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고민하다가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글학교가 생각보다 알차게 운영되고 있더군요. 자원봉사사지만 교사 분들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아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함께 지내며 주말에는 한글학교를 보낼까 합니다. 재외동포재단도 한글학교를 수소문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며 조국이 우리를 잇은 거 아닐까 싶었는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_ 박영주 한국

'고난 극복의 역사 통해 한민족 자긍심 배우다'를 읽고 역사 체험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참 다행함을 느낀다.

그런데 그저 보여주고 펼쳐주는 식으로 퍼주는 프로그램 말고 재외동포와 내국인이 서로 필요를 느끼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함을 느낀다. 요즘 중국어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중국 재외동포와 1대1로 연결이 된다면 나는 중국어를 상대방은 한국어를 배우며 중국과 한국을 서로 비교하며 하나의 공동 화제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공동화제는 우리나라, 우리문화, 그리고 한류, 사이의 강남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일방이 주고 다른 일반이 받아야 하는 체계라면 멀리가지 못하리란 생각이 든다. 재외동포와 내국인을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고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도 물론 참여해보고 싶다.



독도 공식 웹사이트 <http://dokdo.mofat.go.kr/>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인 독도는 60여종의 식물, 129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

720만 재외동포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러운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